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11. 3.(목) 06:00 ~ 23:00
- 상담건수: 931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3명)

-프로그램명 : 「6시 내고향」

-방송일시 : 2022. 11. 2.(수) 1TV (18:00-19:00)

각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저녁 시청한다. 도시에 살다보면 지역 소식을 얻기 힘든데, 방송 덕분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 제작진들의 노고로 집안에서 좋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점에 늘 감사하고 있다. 계속해서 현대인들의 각박한 삶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 자막 제언(48명)

-프로그램명 : 「스크롤 자막」

-방송일시 : 2022. 11. 2.(수) 1TV·2TV

지난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오후 2시경 해제되었는데, 이날 늦은 시간까지도 1TV와 2TV 모두 계속 경계경보에 대한 안내 자막이 표기됐다. 지나친 경계경보 자막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송에 대한 집중을 저해해 안타까웠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동네 한 바퀴’ 외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931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437	23	-	-	471	931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82	292	16	-	-	141	931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50	781	-	931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740	5	80	106	931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로병사의 비밀」 - 결방 제언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방송 호평 ○ 「더 라이브」 - 방송 제언 ○ 「아침마당」 - 방송 호평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 제언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롤 자막」 - 자막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배추’ 연락처 문의 89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26건 ○ 「2TV 생생정보」 - ‘생태찌개’ 연락처 문의 26건 ○ 「아침마당」 - ‘출연자’ 연락처 문의 21건 ○ 「인간극장」 - ‘출연자’ 연락처 문의 11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2건 ○ 「주파수」 문의 2건 외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32건 ○ 「수신료」 문의 2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9건 ○ 「전화교환」 문의 5건 ○ 「건축」 문의 2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 문의사항 포함 106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결방 제언	<p>○ 「생로병사의 비밀」 (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2.(수) 1TV (22:00-22:50) - 장수와 웰빙, 비만과 질병 등 의학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빠짐없이 시청한다. 이해하기 힘든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날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안타까웠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시사·교양]	
방송 호평	<p>○ 「6시 내고향」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2.(수) 1TV (18:00-19:00) - 각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저녁 시청한다. 도시에 살다보면 지역 소식을 얻기 힘든데, 방송 덕분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 제작진들의 노고로 집안에서 좋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점에 늘 감사하고 있다. 계속해서 현대인들의 각박한 삶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제언	<p>○ 「더 라이브」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2.(수) 1TV (22:20-23:00) - 하루를 정리하는 밤 시간에 그날그날의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어 늘 챙겨본다. 그런데 진행자와 다수의 패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이라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진행자 최욱 씨는 패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을 할 때가 많아 보기 불편하다.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만큼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아침마당」 ‘목요특강’(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3.(목) 1TV (08:25-09:30) - 이번 ‘목요특강’은 ‘건강 검진’을 주제로 전상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현아 가정의학과 교수,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이지향 약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모든 강연이 유익했지만, 특히 장민욱 전문의가 경동맥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알려주어 주의 깊게 시청했다. 고지혈증과 당뇨 관리 및 혈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려주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드라마]	
방송 호평	<p>○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2.(수) 2TV (19:50-20:30) - 이날 은서연(박하나 분)이 어린 시절 마대근(차광수 분)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를 결심한 채 르블랑 입사를 결심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드디어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된 것 같아 매우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앞으로 은서연이 르블랑에 입사해 복수해나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지켜보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라디오]	
방송 제언	<p>○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 인터뷰2’(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3.(목) 1R (07:20-08:57)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태원파출소 김백겸 경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하는 시점인데, 그날 경찰의 잘한 점만 부각시킨 인터뷰여서 유익하지 않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기 타]	
자막 제언	<p>○ 「스크롤 자막」(48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2.(수) 1TV·2TV - 지난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오후 2시경 해제되었는데, 이날 늦은 시간까지도 1TV와 2TV 모두 계속 경계경보에 대한 안내 자막이 표기됐다. 지나친 경계경보 자막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송에 대한 집중을 저해해 안타까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